

운송/조선/기계 Analyst 배기연 RA 오정하

02. 6454-4879  
kiyeon.bae@meritz.co.kr02. 6454-4873  
jungha.oh@meritz.co.kr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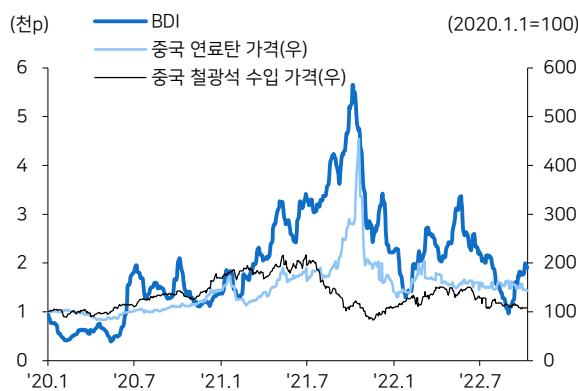
2022. 10. 12 (수)



##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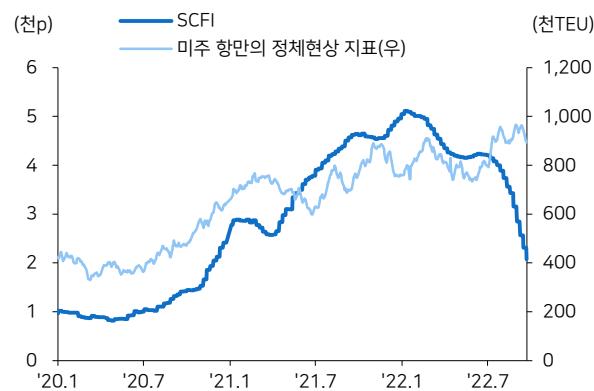
## 건화물운임(BDI)

1,904.0p(-40.0p DoD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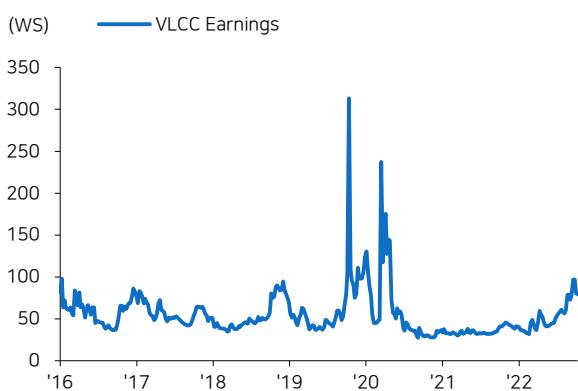
## 컨테이너운임(SCFI)

1,923.0p(-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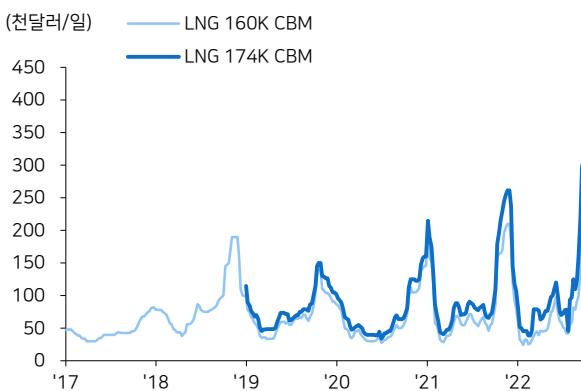


## VLCC Spot Rate

79.5p(-0.9p WoW)



## LNG Spot 운임

326.3p(+56.3p WoW)  
417.5p(+107.5p WoW)

## 신조선가 및 중고선가

162.0p(+0.0p WoW)  
175.8p(-25.3p WoW)

## 항공시장 지표

215.7p(-1.0p DoD)  
81.2p(-0.0p DoD)

자료: Clarksons, Bloomberg,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

##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

### 현대삼호중공업, 3,468억 규모 LNGC 1척 수주

현대삼호중공업이 오세아니아 소재 선주로부터 3,468억원(2.47억달러)규모 LNG선 1척을 수주했다고 공시함. 2026년 1월 인도될 예정임. (뉴시스)

### Shell-KSOE consortium to trial fuel cell on an LNG carrier

현대중공업그룹과 두산퓨얼셀, 쉘가 하이엑시엄, DNV선급이 연료전지를 대형선박에 적용하는 실증사업에 나선다고 보도됨. 11일 컨소시엄 본 계약을 체결한 바 있음. 현대중공업그룹은 2025년 인도할 174,000CBM급 LNG선에 600KW급 고효율 고체산화물연료전지(SOFC)를 탑재해 전력발전에 활용할 계획임. (Tradewinds)

### Angelicouassis Group donates \$2m to DSME workers in memory of John Angelicouassis

대우조선해양이 그리스 최대 해운사인 앙겔리쿠시스그룹으로부터 기부금 200만달러(약 28억원)을 받았다고 보도됨. 지난 6~7월 파업으로 인한 공정지연을 이해하고, 공정을 만회하기 위해 여름휴가를 반납하고 최선을 다해준 노력에 감사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함. (Tradewinds)

### Front runner emerges for Qatar mega-contract worth at least \$4 billion

Qatargas의 North Field Production Sustainability(NFPS) 프로젝트 EPCI 패키지 우선협상자를 선정했다고 보도됨. 이탈리아 Saipem-중국 COOEC로 추정됨. 11월 월드컵 경기가 시작되기 전 EPCI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임. 기타 경쟁자로는 McDermott-현대중공업, Technip Energies-삼성중공업이 있었음. 관계자는 Qatargas는 10월말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바로 FID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언급함. 한편, NFPS package2는 40억달러규모로 2022년 중동에서 최대 단일 프로젝트로 알려짐. (Upstream)

### China approves \$2.4 billion LNG infrastructure expansion

중국 Shenergy Yangshan LNG가 상하이에 두 번째 LNG 수입터미널 증설 승인을 받았다고 보도됨. 24억달러규모 증설로 6MTPA가 증가할 예정임. Shenergy는 2025년까지 파이프라인 및 LNG 저장탱크를 완공하고, 2030년까지 나머지 탱크를 완공할 계획임. 공사는 이르면 오는 11월 시작될 것으로 언급함. (Upstream)

### 김포~하네다 노선 주 56회로 2배 증편

김포~하네다(도쿄) 항공편이 10월말부터 현재 주 28회에서 56회까지 증편된다고 보도됨. 해당 노선은 팬데믹 확산으로 2020년 3월 운항이 중단됐다가 2022년 6월 재개, 7월 주 28회로 재개된 바 있음. 한·일 4개 항공사(대한항공·아시아나항공·일본항공·전일본공수)는 각각 매일 2회 두 공항을 왕복 운항하게 된다고 알려짐. (한국경제)

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 
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

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, 대여, 배포 될 수 없습니다.